

칸트에 있어서의 인격과 존엄성 그리고 자유

-스포츠 의무윤리의 정초-

임석원*

주제분류 스포츠 윤리학

주요어 칸트, 인격, 존엄성, 자유, 도덕법칙, 스포츠 의무윤리

요약문

칸트 윤리학을 스포츠 윤리에 원용하려는 시도는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이 수편을 차지한다. 특히 그의 의무론과 정언명법에 대한 연구로부터 자유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전제로 하여 칸트에 있어서 도덕법의 근거로서 자유의 문제와 인격 그리고 존엄성의 문제를 해명하려는 데 본 논문의 초점이 있다. 이는 칸트가 전통적으로 인간을 이성적 존재임을 전제로 인격과 존엄성으로서의 인간성(인류성)과 자유 그리고 의지의 자발성을 가진 본유적 존재로 보는 것에 있다. 그리고 칸트에 있어서는 도덕법칙의 궁극적인 접점은 자아 즉 개인의 이성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본성적으로 도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인격과 존엄성 그리고 자유는 도덕법칙의 근거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럼으로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은 가상계(예지계)에 속하며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은 그가 자유롭고 자기 의식을 갖고 있으며 도덕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이다. 또한 존엄의 개념은 인격성의 원리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더욱이 인간의 존엄은 인간 존재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칸트의 자유의 개념은 자율의 원리를 정당화하고 설명하는 열쇠이면서 실천이성내에 있는 근원까지 그 개념을 추적하고 정당화하여 도덕법칙에 근거를 밝히려는 것이다.

* 가톨릭 관동대학교

1. 서론

칸트의 윤리학적 입장에서 독일의 게르하르트스는 스포츠 윤리학을 구상하려고 했다. 그는 스포츠 윤리학의 모형을 구상하면서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은 스포츠 윤리학의 가능성의 조건이었고, 그것을 행위자의 자율성에서 찾으려고 했다. 특히 순수이성비판에서 다루었던 자유와 필연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율배반을 스포츠 상황에 접목하여 스포츠 윤리학의 이론 구성을 시도하였다. 그가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문제는 도덕법칙으로서 정언명법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인격과 자유가 도덕 판단에 준거라고 밝히고 있다.¹⁾ 그리고 김정효는 그의 스포츠 윤리학에서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는 스포츠 윤리학을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스포츠의 규칙과 규범을 그 예로 들고 있다. 특히 칸트의 윤리학의 입장은 의무적인 행위와 의무의식에서의 행위간의 구별을 선의자라는 개념을 통하여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자체에 대한 존경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의무적인 행위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의무의 존중을 동기로 삼지 않을 경우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외견상 의무에 배치되는 듯 하지만 도덕법에 대한 존경을 동기로 삼음으로서 도덕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의무주의적 관점은 스포츠의 규칙과 규범이 왜 당위로 주어지는 지를 밝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스포츠의 경쟁은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자기 자신과 동일한 목적들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다.²⁾ 따라서 보편법칙의 수행 근거

1) 정응근·송형석, 『스포츠와 인간』, 이문출판사, 2002, 129-131쪽.

2) 김정효, 『스포츠 윤리학』, 레인보우북스, 2015, 69-73쪽. (칸트에 관한 스포츠 관련 논문을 다음과 같다. 윤여탁·서경호·김학덕, 「칸트윤리학에 기초한 스포츠의 도덕적 기준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4권 2호, 한국체

는 선의지이며, 이때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행위 하는 의지로서 강제로 경험되는 측면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선의지의 원리가 강제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칸트는 “이 세계에 있어서나 또는 이 세상 밖에 있어서까지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³⁾라고 하면서 도덕적 행위는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수행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의무는 경향성과 결과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그것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니라 순수 형식적 요구와 관련되며 도덕법에 대한 존경으로부터의 행위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의무윤리의 초석이며 도덕법의 전제 근거인 인격과 존엄성 그리고 자유에 대한 논증과 의미를 통해 도덕법칙의 전제적 근거를 밝히려는데 있다.

칸트는 인간을 초감성계와 감성계, 가상계와 현상계 모두에 속하는 존재로 본다. 그리고 도덕적 의식을 통하여 감성계는 초감성계에 종속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성은 신의 이념에서는 초감성적인 존재자의 총체를 그리고 세계의 이념에서는 감성적인 존재자의 총체를 사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⁴⁾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가상계에 속한다. 세계내에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동시에 자유를 소유한 존재자이다. 자유는 인과적인 세계 원칙의 밖에 있으면서도 인간에게 속해있는 속성이다. 자유를 소유한다는 것은 정신을 소유한다는 것이며, 세계를 넘어선 존재자

육철학회, 2006, 김리원, 「칸트 철학으로 본 스포츠윤리의 당위성」,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4권 1호, 한국체육철학회, 2016, 김자우, 「칸트의 취향판단에 따른 태권도의 음악도입에 대한 미적가치」,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5권 1호, 한국사회체육학회, 2011, 윤미정, 「스포츠에서 미와 도덕성과의 연결-칸트철학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0권 2호, 한국체육학회, 2011.)

3)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Akademie-Ausgabe(Gr로 표시),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역, 아카넷, 2014, Gr., 393쪽.

4) 코플스톤, 『서양철학사 칸트편』, 임재진 역, 중원문화, 1986, 302쪽.

즉 인간은 정신이다. 또한 정신적인 원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육체인 존재자는 영혼이 없는 동물일 뿐이다. 인격인 것만이 인간이다. 인간은 그가 자유롭고 자기의식을 갖고 있고 도덕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의 인격이다. 그럼으로 존엄성의 개념은 인격성의 원리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더욱이 인간의 존엄은 인간 존재가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는데 있으며 또한 그 자체 목적적 존재라는데 있는 것이다. 칸트는 이성애 근거해서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체계화한 측면이 있다. 그럼으로 칸트에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존엄한 존재이다.⁵⁾

그러나 칸트가 여타의 철학자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간 존엄성의 조건으로서 법칙수립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점이다. 물론 오늘날 이성의 이론적 위상과 기능은 철학의 탈 형이상학적인 담론의 영향 속에서 왜소화 되었다. 곧 이성이라는 말은 철학사를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이성의 이름이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⁶⁾ 칸트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함이나 귀중함은 어떤 값어치와도 무관하며, 그것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어떤 것도 그것과 대치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성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실천적 동인이나 장래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에게 세우는 법칙이외의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성의 이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⁷⁾ 또한 칸트는 인과필연성과 적극적인 자유에 대하여 논하면서 현상의 범위 안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과필연성의 연속에 있으며 인간의 의지현상도 인과적 생기라는 필연계열에 속

5) Gr., 428-430쪽.

6) 강현정, 「칸트철학에서 인간 존엄성의 문제」, 한국칸트연구회, 20집, 2007, 4쪽, 재인용.

7) Gr., 434쪽.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지 행위의 현상까지도 필연으로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덕적 인간만은 적극적 자유에 의하여 행위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칸트는 자유를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구분한다. 적극적 자유는 가상적 성격의 능력이고 작용이며, 이 자유는 원인의 절대적 자발성인 것이다. 그럼으로 현상계에 타당한 자연의 인과성과 가상계에 타당 하는 자유의 원인성은 양립 조화한다.

따라서 칸트는 자유 의지를 무(無)규정 곧 비결정과 같은 소극적 자유로 이해하지 않고 도덕인으로서의 내적 본질에 스스로 합치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로 이해하였다. 이 적극적 자유는 곧 원인의 절대적 자발성으로서 현상중의 인과적 필연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다. 곧 칸트에 있어서 절대적 자발성은 선험적 자유이며, 이 자유는 인식될 수는 없고 도덕적인 인간의 본질에 합치하는 적극적 자유로 확인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덕법은 자유의 인식 근거이며, 반면에 자유의지는 도덕법의 존재 근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과거와 미래에 있어서의 선택적 의지를 예상하는 것이며, 이런 자기 결정적 자유 의지는 모두 그 기본에 있어서 개별적 인격의 사람다운 자유의지를 예상하며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운명과는 부단히 대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지의 주체인 인격은 운명과의 상호작용 중에서 더욱 향상한다.⁸⁾

2. 인격

인간은 자율적 자유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도덕적이며 인격이다. 현실적인 인간은 물리적 자연세계에 삶의 지평을 열기 때문에

8) 최재희, 『인간주의 윤리학』, 일신사, 1978, 27-29쪽.

현상적인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자율적인 도덕적 존재로서는 자유와 자기의식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인간이 물리적 자연세계의 삶을 넘어서 도덕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칸트는 그의 순수이성비판의 인격성의 오류 추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간상에서 자기 자신의 수적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그런 한에서 인격이다. 그러나 무릇 나는 내감의 대상이고 모든 시간은 한낱 내감의 형식이다. 따라서 나는 모든 그리고 각각의 나의 연이은 규정들을 모든 시간에서 다시 말해 나 자신의 내적 직관의 형식에서 수적으로 동일한 자기와 관계시킨다. 이런 근거에서 영혼의 인격성은 결코 추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시간상의 자기의식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명제로 보아야 한다.”⁹⁾

이러한 인격성은 통각(자기의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칸트에 있어서 통각아(我)는 모든 나의 표상에 수반해야 하는 ‘나는 생각 한다’이다. 즉 사유작용의 기점으로서 내가 아니라 사유 그 자체의 근원적 종합적 통일이다. 따라서 모든 사유는 ‘나는 생각 한다’인 동시에 사유하는 나도 ‘나는 생각 한다’이다. “그러나 사고하는 존재자의 본성에 관한 순수이성의 학이라고 잘못 여겨지고 있는 초월적 영혼론 내의 오류 추리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의 기초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단순함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내용도 가지지 않는 전혀 공허한 표상인 ‘나’가 있을 뿐이다. 이 표상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은 하나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며, 그것은 모든 개념들에 수반하는 한낱 의식일 따름이다.”¹⁰⁾

따라서 칸트는 단순한 그리고 그 자신으로서는 전혀 내용이 공허한 나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개념일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개념에 수반하는 단순한 의식이다. 그럼으로 사유하는

9)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Original-Ausgabe(K. r. V., A. B. 361쪽),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6, K. r. V. A 361-362쪽.

10) K. r. V., B. 404쪽, A. 464쪽.

‘나’ 혹은 ‘그’로서 나타내는 것은 사유의 선험적 주체인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 술어인 사유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사유하는 것을 떠나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의 개념조차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상을 대상으로서 가능하게 하는 입장 즉 초월적 주체이고 그 자신은 결코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개념을 범주로 싣는 것이다. 그리고 범주를 싣는 것은 범주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 자신 범주의 통일 형식에 속하지 않는 선험적인 ‘나는 생각한다’가 칸트의 이른바 초월적 인격성이다.¹¹⁾ 칸트의 오류·추리론은 범주의 근거에 범주를 적용하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데 있으며 곧 선험적 인격성이 대상이 아니라 무(無)라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대상적으로 무인 인격성에 대해서 인격은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 그것은 ‘나는 생각한다’는 것에 실체의 범주를 적용했을 때 지성적 실체로서의 동일성이 인격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다. 곧 이 지성적 실체가 인격이고 인격의 동일성이 인격성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의 인격성을 선험적 인격성과 구별해서 순수 심리학적 인격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¹²⁾ 왜냐하면 칸트의 “나는 생각한다의 동일성이 인격의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곧 “내가 의식하는 모든 잡다에서 나 자신이 동일하다는 명제는 그 개념들 자체에 놓여 있는 분석적인 명제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표상들에서 의식할 수 있는 주간의 동일성은 그것을 통해 주관이 객체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직관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인격의 동일성을 의미할 수는 없다. 인격의 동일성이란 이를 통해 상태들이 모두 바뀌는데도 생각하는 존재자로서 자기 자신의 실체의 동일성의 의식이 이해되는 그런 것으로 이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고한다는 명제의 순전한 분석만으로는 그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주어진 직

11) 이석희, 「칸트에 있어서의 선험적 인격성과 인격의 성립」,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5, 5쪽.

12) 앞의 논문, 5쪽.

관에 기초한 종합판단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¹³⁾

이와 같이 인격은 대상적으로 무(無)인 인격성에 의해 비로소 인격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곧 인격이 인격성으로서의 적법성의 여부는 전형(typik)이고 인격성의 인격화는 도식(schema)이다.¹⁴⁾ 이러한 양자의 결합을 칸트는 인격성의 오류 추리에서 “여러 다른 시간에 있어서의 자기의 수적 동일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한에서 인격이다. 그런데 영혼은 그러한 것이다.”¹⁵⁾ 이런 근거에서 영혼의 인격성은 추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시간상의 자기의식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명제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유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내감의 대상이고 모든 시간은 내감의 형식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인격의 동일성은 나 자신의 의식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만약 나를 타자의 관점에서 관찰한다면 이 외적 관찰자는 나를 우선 시간상에서 고찰하게 된다. 왜냐하면 통각(자기의식)에서 시간은 원래 나 안에서만 표상되는 것이니 말이다.”¹⁶⁾ 특히 칸트는 인격과 인격성의 구별 및 통일을 시도하면서 특히 가상인과 현상인과의 내면적 관계를 시간을 매개로 제기한 것은 칸트 자신이 감각의 대상에 있어서 그 자신 현상이 아닌 것을 가상적이라고 하고 감각의 대상에 있어서 그 자신 가상이 아닌 것을 현상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감관의 대상에서 그 자신 현상이 아닌 것을 나는 예지적(가상적)이라 일컫는다. 따라서 감성계에서 현상으로 보여 저야만 할 것이 그 자체로 또한 감성적 직관의 대상이 아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로인해 그러면서도 그것이 현상의 원인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자의 원인성을 두면서 고찰할 수 있다. 곧 사물 그 자체인 것으로서의 그것의 작용의 면에서는 예지적

13) K. r. V., B. 408쪽.

14) 이석희, 앞의 논문, 5쪽.

15) K. r. V., A. 361쪽.

16) K. r. V., A. 362쪽.

(가상적)인 것으로 감성계내의 현상으로서의 그 작용의 결과들의 면에서는 감각적인 것으로 고찰할 수 있다.”¹⁷⁾

여기서 칸트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그 자신에 있어서 초월적 인격성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인격성이 동시에 대상으로서는 무엇인가를 야기하는 능력인 것이다. 그럼으로 예지적인 능력으로서의 순수이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합치된다. 고로 사람은 현상인으로서의 현상으로서의 원인성을 가지며 예지인으로서의 그 자신에 있는 것으로서의 원인성을 즉 가상적 원인성을 가진다. 따라서 예지인(가상인)은 현상인에 대립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있는 것으로서의 사람의 예지적인 성격인 것이다.¹⁸⁾ 따라서 사람은 현상인으로서의 경험적 성격에서 존재하지만 그 사람이 자유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한 예지적인 성격이 있음을 허용해야만 된다.

그리고 막스 셸러는 “인격의 존재는 결코 어떤 법칙성에 상응하는 이성 작용의 주어로 해소되지 않는다…그것은 작용의 주어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격의 존재를 사물적 실체적 존재로 파악하는 것과 같은 오류이다. 인격은 이른바 도덕법칙 덕분에 비로서 창조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도덕법칙에 복종하는 것일 수는 없다.”¹⁹⁾

따라서 칸트는 “경험적 성격이 이성의 감성적 도식일 따름인 예지적 성격에 대해서는 선후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모든 행위 작용은 그것이 다른 현상들과 함께 시간관계를 도외시하면 순수이성의 예지적 성격의 직접적 작용 결과다. 그럼으로 순수 이성인 자연원인들의 연쇄에서 외적인 또는 내적인 그러나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근거들에 의해 역학

17) K. r. V., A. 538쪽, B. 566쪽.

18) 이석희, 앞의 논문, 8쪽.

19) Max Scheler, *Der Formalism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hik*, 막스 셸러,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 이을상·금교영 역, 서광사, 1998, 443쪽.

적으로 규정됨 없이 자유롭게 행위하고 작용한다.”²⁰⁾ 또한 명백히 이런 사정을 “경험에 적용해보면 인간은 감성계의 현상들 중 하나이고 그런 한에서 또한 그 인과성이 경험적 법칙들 아래 있을 수 밖에 없는 자연원인들 중에 하나이다.”²¹⁾ 이와 같이 감성적인 도식 혹은 표시에 의해 자기를 표현하고 그 이외의 방식으로서는 전혀 우리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칸트는 선험적 원인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럼으로 원인성의 범주의 의미에서 예지적 성격이 선험적 인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칸트는 선험적 인격성과 인격을 구별하고 양자의 연관을 시간에서 자각으로 표시하면서 시간을 자기 내에 가지는 선험적 인격성을 스스로 그 시간 중에 출현함으로서 인격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험적 인격성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시간에 있어서와 똑같이 공간에 있어서의 자각이 여기에서는 증명되지 않았다. 그럼으로 선험적 인격성은 시간 안에 나타나서 객체아로 되는 시간에 또한 공간 안에 나타나서 육체아로 됨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닐까²²⁾

원래 칸트는 인격과 인격성을 순수이성비판의 오류 추리의 장에서 증명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목표하는 것은 실체로서의 영혼의 객체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논증이다. 따라서 인간의 탄생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또한 사후에 존속할 것인 영혼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것들은 곧 “①영혼과 유기적 물체와 상호 작용의 가능성 다시 말해 생명선과 인간의 생존에서 영혼의 상태에 관한 물음, ②이 상호 작용의 시작 다시 말해 인간이 탄생하는 때와 탄생하기 전의 물음, ③이 상호 작용의 끝 다시 말해 인간이 죽을 때와 죽은 후의 영혼에 관한 물음이다.”²³⁾ 물론 인격이 위

20) K. r. V., B. 581쪽.

21) K. r. V., B. 574쪽.

22) 이석희, 앞의 논문, 10쪽.

23) K. r. V., A. 384쪽.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리학적 자아와 선험적 인격성과의 통일이라는 것은 위의 논증에서 스스로 명백해진다. 그러나 영혼과 구별된 육체는 공간에 있어서의 외적 대상으로서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칸트는 “사고한다는 것으로서의 나는 내감의 대상이고 영혼이라 일컫러진다. 외감들의 대상인 것은 신체라 일컫러진다. 따라서 사고하는 존재로서 나라는 표현은 이미 심리학의 대상임을 표현한다.”²⁴⁾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적 대상인 물체는 선험적 인격성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일까? 내적 대상인 객체아가 시간을 매개로 선험적 인격성과 결합하는 데에 외적 대상은 왜 공간을 매개로 똑같이 결합할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칸트는 “경험적 대상이 공간에서 표상되면 외적 대상이고 단지 시간관계에서 표상되면 내적 대상이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은 우리 안에서만 표현된다.”²⁵⁾ 여기서 내외 및 우리 안의 3자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이 그 안에서 만나는 우리는 물론 시간 중에 나타난 우리는 아니다. 즉 그것은 객체아가 아니라 선험적 인격성이다. 칸트는 모든 대상이 선험적 인격성에서만 대상이 되도록 설명하기 때문에 위에 기술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안이 아닌 어떠한 대상도 설명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상술한 의미에서 우리 안이 아닌 어떠한 대상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칸트는 영혼과 육체 즉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의 육체성과 영혼의 상태와의 결합의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내재했던 어려운 문제를 선험적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영혼과 육체와의 결합은 불가지의 대상에 다른 방식에서의 현상의 결합 따라서 내감의 표상과 외적 감성이 변한 양태의 결합이다. 곧 내감의 표상들과 우리 외적 감성의 변양들과의 연결에 관한 것으로 이것들이 상호간에 일정한 법칙들에 의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

24) K. r. V., A. 342쪽.

25) K. r. V., A. 373쪽.

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험 중에서 연관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²⁶⁾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시간에서의 자각이 공간의 표상과 필연적으로 결합하는 특수한 경우를 발견해야만 한다. 모든 물체 중에서 나의 신체라 불리는 신체만이 나의 것으로서 나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것 즉 나 밖의 다른 것이면서 동시에 나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서의 자각으로서의 이중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시간과 공간의 두 형식의 결합은 오로지 심신 결합의 경우만은 아니다. 객체화가 시간에서의 표상인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외적 현상은 공간에서와 같이 시간에서의 표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모든 현상 일반의 압프리오리한(Apriori)형식적 제약이다.”²⁷⁾

다음으로 실천철학에서의 인격 개념은 칸트는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그의 도덕 형이상학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인격에 대한 정언명법을 제시하고 있다. “너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행위하라”²⁸⁾ 이는 필연적으로 인격 자체에 대한 존중을 명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명법은 엄격히 말해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성적 존재 자체를 포함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이성적 존재는 인간뿐이므로 인간을 인간으로서 또는 이성적 존재자로서 존중하도록 명령받는 명법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함축되어 있는 이성은 이성적 의지를 소유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의 정언 명법은 인간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목적으로 다루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격과 인간성의 구별은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이 자기 목적으로

26) K. r. V., A. 386쪽.

27) K. r. V., B. 81쪽.

28) Gr., 429쪽.

다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성 혹은 인격성이 그 존재론적 규정이라고 한다면 인간성을 자기 목적으로 본다는 것은 동시에 인격적 인간을 자기 목적적 존재자로 보는 것과 같다. 그럼으로 인격과 인간성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 대신에 인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본다. 물론 칸트는 자기 인격 및 타인의 인격을 다 같이 동시에 수단적 자기 목적적으로 다루라고 말했던 것은 자타인격을 자기 목적적으로만 다룬다면 인간관계는 성립할 수 없고 자기 목적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수단으로서도 다룰 때에 자기 인격과 타인의 인격은 서로 치환되어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상호적하게 된다. 물론 칸트 자신의 경우조차도 인격의 자율보다는 이성의 자율에 관해 더 자주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²⁹⁾ 이것은 칸트가 인간성의 원리를 공동체적 법칙이라고 보는 것과 상통한다.³⁰⁾ 그리고 칸트의 이른바 자율도 자아가 인격의 독자성을 의미하고 이 독자성이 실은 자율이 아니라 이성의 법칙이며 개인적 인격에 대해서는 타율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리하여 칸트의 인격개념은 전혀 개인주의적이 아니라 하겠다.

위의 명제에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라는 명제에서 목적은 의지의 자기규정의 객관적 근거이며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동등하게 타당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수단이고 욕망의 주관적 근거는 동기이며 의욕의 객관적 근거는 동인이다. 따라서 실천적 원리가 모든 주관적 목적을 무시하면 형식적이고 실천적 원리가 목적을 따라서 동기에 기초될 때에는 실질적이고 가언명법의 근거가 된다. 그럼으로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목적 자체의 근거라 하겠다. 따라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자체로서 자신을 보편적인 입법자로 간주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가령 그 존재 자체에 있어

29) 막스 셸러, 앞의 책, 444쪽.

30) 이석희, 앞의 논문, 19쪽.

서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있다면 곧 그 자체에 있어서의 목적으로 정해진 법칙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그리고 오직 그 가운데만 가능한 정언적인 명법의 근거 곧 실천 법칙이 들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과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이러저러한 의지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되는 한낱 수단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에 관계하는 일체의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¹⁾ 그리고 이때 목적 자체로라는 말은 “의지의 자율은 법칙에 단순히 복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 스스로 입법자이며 법칙을 수립한다는 이념이기 때문에 무제약적인 정언명법일 수 있는 것이다.”³²⁾ 그러기에 “의지의 자율이란 도덕성의 최상의 원리로서 그 자신에 대해 법칙이 되는 의지이고 도덕성의 원리는 다름 아닌 자율을 명령하는 것이다.”³³⁾

3. 존엄성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칸트가 인간 존엄성 사상을 자신의 도덕철학의 전면에 내세워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으로 그에 있어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자기스스로 법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그것 속에 종속 시킬 수 있는 자율성과 이성의 도덕성을 통하여 해명하고 있다.³⁴⁾ 그런데 도덕적 가치는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모든 이성적

31) Gr., 428쪽.

32) Gr., 432쪽.

33) Gr., 440쪽.

34) 강현정, 앞의 논문, 2-4쪽.

행위자에게 타당하며 어떤 다른 가치와도 양립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리고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의 왕국의 법칙을 세우는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도덕성을 통해서이다. 이로부터 칸트는 오직 도덕성과 도덕성의 능력이 있는 한에서의 인격만이 존엄이나 귀중함 또는 내적가치를 지닐 수 있고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짓는다.³⁵⁾ 칸트는 이성적인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그 능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들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 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됨으로 의지는 실천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³⁶⁾ 이와 같이 이성은 도덕적 보편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법칙 수립능력인 곧 실천이성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를 결정할 때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⁷⁾ 따라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특징짓는 실천이성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도덕법칙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³⁸⁾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앞서 지적한데로 자율성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그리하여 칸트는 자율성을 인간의 고유한 본성으로 파악하며 존엄성의 근거로 특징짓는다.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법칙수립 자신은 바로 그 때문에 존엄성을 다시 말해 무조건적인(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만 하고 존경이라는 낱말만이 이에 대해 이성적 존재자가 행해야 할 평가에 유일하게 알맞은 표현을 제공한다. 그럼으로 자율은 인간과

35) Gr., 436쪽.

36) Gr., 412쪽.

37) C. M. 코스가드, 『목적의 왕국 : 칸트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김양현·강현정 역, 철학과 현실사, 2007, 321-322쪽.

38) 강현정, 앞의 논문, 5쪽.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성의 근거이다.³⁹⁾ 이러한 논거는 법칙수립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자율성이 인간본성의 존엄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스스로 법칙을 수립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법칙에 종속시킨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수립한 법칙을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며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칙이 나와 무관하게 나의 능력범위를 초월해서 수립되는 경우란 없다. 이러한 도덕적 자율성은 오직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 능력으로서 인간을 다른 존재와 차별화 시키는 가치를 지닌 존재로 특징짓는다.⁴⁰⁾ 칸트는 인간존엄성의 근거로서 도덕성 개념을 들고 있다. “무릇 도덕성은 그 아래서만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그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만 목적의 나라에서 법칙 수립적인 성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윤리성과 윤리적일 수 있는 한에서의 인간성만이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다.”⁴¹⁾ 이에 대해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목적의 왕국에 있어서 모든 것은 가격을 가지거나 또는 존엄성을 갖는다. 만약 그것이 가격을 가진다면 다른 동일한 가격의 어떤 것과 교환될 수 있는데 반해 만약 그것이 모든 가격을 초월하여 동일한 가격의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존엄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애착과 욕구에 관계되는 것은 시장가격을 갖는다. 그러나 어떤 욕구를 전제하지 않고 기호에 적합 하는 것 즉 우리의 정신 능력의 단순한 무목적적인 유희에 있어서 생기는 만족에 적합 하는 것은 애호가가격을 갖는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것을 목적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의 조건인 것은 단순히 상대적인 가치 즉 가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가치 곧 존엄성을 갖는다.”⁴²⁾고 밝히고 있다.

39) Gr., 436쪽.

40) 강현정, 앞의 논문, 7쪽.

41) Gr., 435쪽.

42) Gr., 434-435쪽.

그럼으로 칸트에 있어서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인격성은 목적 그 자체로 취급되어야 하고 단순히 수단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 품위나 도덕적 가치는 존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행위 일반의 현상은 외부적 환경의 지배에 의하여 존엄성과 품위를 위협하는 것도 있다. 즉 모든 인간 존재가 목적 자체이고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라면 개별적 인간 역시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칸트는 인간 존재의 존엄성의 근거를 이성적 존재자의 입법성 즉 자율에 두고 있으면서 “이성적 존재자는 원칙이 정해주는 가치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그럼으로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입법자 자신은 바로 그 까닭으로 존엄성은 무제약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가 이러한 가치에 받쳐야 할 존중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말은 존경이라는 말 뿐이며 그럼으로 자율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성의 근거”⁴³⁾이다. 이러한 한에서 본래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가 구분될 수 있는데 그러나 절대적 가치가 덕과 선의지에 근거되는 것이라면 모든 인간이 일상적 행위가 절대적 가치를 갖거나 선의지에 근거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엄성과 본래적 가치는 동일한 것이므로 존엄한 존재란 이성적 존재자의 입법성 즉 자율에 근거해 있는 것이다. “이성적 존재자는 원칙이 정해주는 가치이외에 다른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다. 그럼으로 모든 가치를 규정하는 입법자 자신은 바로 그 까닭으로 곧 무제약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가 이러한 가치에 바쳐야 할 존중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말은 존경이라는 말 뿐이다. 그럼으로 자율은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존엄성의 근거인 것이다.”⁴⁴⁾ 이 말은 절대적 가치를 존엄성과 동일시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가치가 존엄성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43) Gr., 436쪽.

44) Gr., 436쪽.

다. 예를 들어 행복은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나 무조건적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복은 목표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 자체로서의 선의지와 행복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칸트의 입론은 다음과 같다. “권력, 부, 명예, 행복이라고 지칭되고 건강과 완전한 삶 그리고 자기의 현실상황에서의 만족 그것들이 심성이나 행위의 원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잡아주고 보편적 합목적적이 되도록 잡아주는 선의지가 없다면 사람들을 의기양양하게해서 그로 인하여 오만으로 빠지게도 된다. 불편 불의한 이성적인 사람은 선의지의 특징이 전혀 없는 사람이 현실적인 변역을 누리는 것을 보면 혐오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으로 선의지는 행복할만한 값어치를 위해서 불가결한 조건이다.”⁴⁵⁾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인간의 일상적인 행복은 조건적인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선의지나 도덕적 완전성의 가치는 절대적인 무제한적 가치라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격은 그것의 실체가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치를 가지는 순수한 주관적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 목적이다. 즉 그것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목적이 되며, 그것 대신에 다른 목적이 주어질 수 없고 다른 목적은 수단으로서 인격에 봉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대적 가치란 아무것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치가 제약되어 있고 우연적이라면 이성에 대한 최상의 원리란 아무데도 있을 수 없다.”⁴⁶⁾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인간존재가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 그 자체가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본래성 곧 인간성의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은 평등한 가치를 가지나 다른 의미에서는 현실적인 행위세계에서는 그렇지도 않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인간관계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

45) Gr., 393쪽.

46) Gr., 428쪽.

나 상대적인 가치로서 목적자체로서의 인간에게는 상대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칸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무릇 도덕성은 그 아래에서만 이성적 존재자가 목적 자체일 수 있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만 목적의 나라에서 법칙순응적인 성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윤리성과 윤리적일 수 있는 한에서의 인간성만이 존엄성을 가지는 것이다. 숙련과 근면은 시장가격을 갖는다 기지와 발랄한 상상력 그리고 해학은 애호가격을 갖는다. 그에 반해 약속에서 신용이나(본능에서가 아니라) 원칙에서의 호의는 내적 가치를 갖는다.”⁴⁷⁾

이것은 도덕성이 덕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의지에 대하여 성취되는 것이고 도덕 법칙은 각자의 자율성에 기초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성이란 말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목적 자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도덕 법칙 자체를 입법할 수 있는 주체라는 말과 같다. 왜냐하면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도덕을 입법하는 주체이며 동시에 도덕법의 실천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칸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의무라는 개념을 우리는 도덕법칙에의 복종이라고 생각하되 이 개념에 의해 동시에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는 인격에 대하여 숭고함과 존엄을 느끼는 일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 인격이 도덕법에 종속해 있는 한에서 그에게 숭고는 물론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도덕법칙의 입법자요 그 이유에 의해서만 도덕법에 종속하는 한에서 숭고함이 있다. ... 다시 말하면 자기의 준칙에 의해 보편적인 법칙을 줄 수 있다는 조건아래에서만 행위 해야 하는 한의 우리 자신의 의지 즉 이념에 의해 우리에게 가능한 의지야 말로 참으로 충분한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입법한 법칙에 자신이 복종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성이 보편적 법칙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립하는 것이다.”⁴⁸⁾ 특히 칸트는 존

47) Gr., 435쪽.

48) Gr., 439-440쪽.

엄정의 개념을 더욱 명료화하기 위하여 행동의 현상과 동기의 구분을 통하여 행위의 자율성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자가 존엄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율성으로서의 존엄성에 반대되는 시장가격의 개념을 대립시켜 해명하였다. 예를 들어 숙달과 부지런함은 시장가격을 갖는 것이고 기지와 상상력은 애호 가격을 가지며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은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 숙달과 근면 그리고 기지나 상상력은 행위의 현상에 대한 평가이며 그 동기가 고려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내적 가치인 동기에 의하여 지켜야만 하는 의무의 성질을 갖는다. 왜냐하면 약속의 파괴는 곧 인간성의 파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칸트에 있어서 무조건적 정언명법과 전제적 조건으로서의 가언명법은 구별된다. 전자는 본래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무제약적 명령으로 보았고 후자는 수단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조건적 명령으로 본 것도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의 입증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칸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성적 존재자가 그 행위의 결과로서 임의로 설정할 실질적 목적은 모두 상대적일 뿐이다. 왜냐하면 주관의 욕구능력에 대한 목적의 관계만이 그와 같은 목적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고로 이러한 가치는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의욕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타당함으로 필연적인 원리 즉 실천 법칙을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상대적 목적은 가언명법의 근거일 뿐이다.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 곧 그 자체에 있어서 하나의 목적으로서 일정한 법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것 만에 그리고 그런 것의 안에만 가능한 정언명법 즉 실천법칙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⁴⁹⁾ 물론 칸트의 존엄한 존재의 범주에는 이론상 현실의 비도덕적인 인간 심지어 극악무도한 악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49) Gr., 427-428쪽.

이다. 따라서 칸트가 존엄성을 도덕적인 행위능력과 동일시 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도덕적 행위의 성취와는 무관한 것이다. 선의지가 그것을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선했던 것이 아니듯 인간의 존엄성의 경우 역시 인간이 실제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성취한 것 때문에 존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곧 도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의무의 준수 곧 책임의 능력과 관련된다.⁵⁰⁾ 따라서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존엄성을 갖는 근거는 본능적인 욕망이나 욕구를 이겨내고 도덕적인 법칙을 수립해서 그것을 따른다는 점에 있다. 그럼으로 인간의 존엄의 이념은 자기 입법의 법칙만을 따르는데 있다. 그런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이 도덕적 능력을 내적 가치로서 가지는데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임이 들어난다. 만약에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기의 존엄성을 의혹한다면 그 의혹은 일상적 욕구를 넘어서 인격성 그 자체의 요구로서 심리학적 욕구와는 구별된다.

4. 자유

칸트는 순수이성비판 제3모순에서 현상에 대한 자연 인과성(자연법칙)과 자유의 원인성(자유의 법칙)을 함께 인정하였다. “자연법칙에 따르는 인과성은 그로부터 세계의 현상들이 모두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의한 인과성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⁵¹⁾”고 하였다. 이러한 칸트의 입장은 모든 현상이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며 2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있고 최초의 시작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론적 이론으로서의 최초의 원인성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원인성은 인과계열의 완전성으로서의

50) 강현정, 앞의 논문, 10쪽.

51) K. r. V., B. 472쪽.

제약의 총체성을 가능케 하는 자유로서의 선험적 이념인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칙은 충분히 선험적으로 규정된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 성립한다. 그럼으로 마치 모든 인과성이 오로지 자연법칙들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명제는 그것이 무제한적인 보편성에서는 자기 모순적이다.”⁵²⁾ 그리고 초월적 자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럼으로 초월적 이성개념(선험적 이성개념)은 다름 아니라 주어진 조건적인 것을 위한 조건들 전체라는 개념이다. 이제 무조건적인 것만이 조건들 전체를 가능하게 하고 거꾸로 보자면 조건들 전체는 항상 그 자체로 무조건적이므로 순수이성개념 일반은 무조건자라는 개념에 의해 이 무조건자라는 개념이 조건적인 것의 종합근거를 함유하는 한에서 설명될 수 있다.”⁵³⁾ 그럼으로 칸트는 선험적 이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제약의 총체성을 가능케 하는 무제약자를 선험적 이념으로 상정한 칸트는 인과계열의 완전성을 선험적 자유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선험적 자유는 현상계가 아닌 물자체계에서 그 구출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칸트는 “현상이 물자체 그것이라면 자유는 구제될 수 없다”⁵⁴⁾고 하였다.

그럼으로 칸트는 “세계의 절대적인 최초의 상태, 그러니까 연이어 진행되는 현상들의 계열의 절대적 시작을 생각해 내라고 또 여러분의 상상력에 정지점을 주기 위해 무제한적인 자연에 한계를 정하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명령했는가...이제 우리에게 세계의 행정에서 인과적으로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계열을 두고 세계의 실체들에게 자유로부터 행동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일이 허용된다.”⁵⁵⁾ 그리고 시간 중에서 한 계열이 자발적으로 계시하는 능력이란 절대적인 시초의 계시가 아니라 시간상의

52) K. r. V., B. 474쪽.

53) K. r. V., B. 379쪽.

54) K. r. V., B. 474쪽.

55) K. r. V., B. 477-478쪽.

인과성에 있어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자유로 행위 하는 능력은 칸트가 선험적 자유를 인간 행위에 까지 연장시키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의 원인성은 자연법칙에 따라서 다시금 그것을 시간상에서 규정한 또 다른 하나의 원인 아래 종속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는 순수한 초월적 이념으로서 그것은 경험에서 빌려온 것을 아무 것도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것의 대상은 어떠한 경험에서도 일정하게 주어질 수가 없다.” “실천적 의미에서 자유란 감성의 충동에 의한 강요로부터의 의사의 독립을 말한다. 왜냐하면 의사는 정념적으로 촉발되는 한에서는 감성적이고 그것이 정념적으로 어쩔 수 없게 될 수 있을 적에는 동물적이라 일컬어지니 말이다.”⁵⁶⁾

이러한 칸트의 태도는 사고하는 본성으로부터 도덕과 종교의 근거를 밝히려는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칸트는 사고하는 본성과 물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질은 그 자체로 현상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것에 어떤 알려지지 않는 대상이 상응하는 한낱 마음의 표상이 아니라 대상 그 자체이며 우리 밖에 일체의 감성에 독립적으로 실존하는 그대로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니 말이다.”⁵⁷⁾ 이것은 사고하는 본성을 물질과정의 현상으로 보려는 것을 넘어 실체로 보는 것이며 물질을 현상이나 심성의 표상이 아닌 물(物) 자체 그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칸트가 우조론적 이념의 규정을 실천적 관심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칸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세계가 시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나의 사고하는 자아는 단순하고 그래서 불우한 본성을 갖는다는 것, 이 자기는 동시에 그것의 의사에 따른 행위들에 있어 자유롭고 자연의 강제를 넘어서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를 이루고 있는 사물들의 전체 질서는 그로부터 만물이 통일성과 합목적적인 연결을 얻고 있는 한 근원적인 존재자로부터 유래한다는 것 이것

56) K. r. V., B. 561쪽.

57) K. r. V., A. 391쪽.

들이야 말로 도덕과 종교의 초석들이다.”⁵⁸⁾ 이러한 칸트의 태도는 사물의 현상과 실제 예지계와 현상계의 모순의 해결을 분명히 한 것이고 자유론과 결정론간의 대립으로부터 그 모순을 도덕적 자유애로 연결하여 통일을 이룬 것이다. 그럼으로 실천적 자유는 절대적 자기 활동의 의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칸트의 자유의 개념은 자기 입법으로서의 이성의 주관적 원리이며 경험적 제약에 도덕의 원리가 의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의 본질이 자유이므로 자유가 스스로 입법적이고 그 자유의 원리로부터 실천법칙이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칸트의 “자유의 개념이 자연 질서에서 독립적인 소극적인 자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자유로 파악된 것이다.”⁵⁹⁾

그럼으로 칸트의 자유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의 실천철학에 있어서의 자유는 소질 또는 의지의 특성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의미이며 자율적 자유인 것이다. 그 자체로는 무엇인지 인식되는바 없으나 사고가운데에서 현상의 근저에 두어져야 했고 자유에 의한 원인성이라고 생각되는 인간의 예지적 성격이 경험적 성격의 근저에 두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 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은 경험적이면서 동시에 예지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선험적 자유와 인과 필연성은 서로 모순 없이 조화 양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칸트는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서 독립하여 실천적 필연이라고 인정하는 것. 곧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⁶⁰⁾이다. 이러한 자유의지의 의미를 밝히는 일은 도덕법칙의 존재를 밝히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풀리면 다른 하나는 저절로 해결된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실천법칙은 의지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요청함으로 만약 그것의 전제가 의심 없는 사실이라면 의지의 자유도 간접적으로나

58) K. r. V., B. 494쪽.

59) K. r. V., B. 581쪽.

60) Gr., 412쪽.

마 확실히 될 것이오, 이와 반대로 만약 의지의 자유의 가능성이 먼저 밝혀진다면 그것은 모든 경험적 제약을 초월한 선천적 의지가 고유한 법칙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의지의 자유라는 개념은 그 자체의 분석에서 보면 보편적 실천법칙의 전제는 저절로 논증될 것이다.⁶¹⁾ 이에 대하여 칸트는 그의 실천이성 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지금 자유를 도덕법칙의 조건이라고 일컬고…그래서 나는 자유는 물론 도덕법의 존재 근거이나 도덕법은 자유의 인식근거라는 것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만약 도덕법칙이 우리의 이성에서 먼저 분명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면…그런 반면에 자유가 없다면 도덕법칙은 우리 안에서 결코 마주칠 수 없을 터이다.”⁶²⁾

그러면 칸트의 도덕적 실천법칙의 토대는 도덕적 사실인 것이며 이 사실은 의식의 경험적 요소를 제거한 순수한 도덕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 순수한 도덕의식은 이성에 의거한 의식의 필연성과 보편성으로서 예지적 강제력인 것이다. 곧 선천적 입법의 형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도덕성의 형식 원리를 정언명법으로 경험하며, 이러한 능력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발견되는 것으로서 이성적 존재자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언제나 가능한 목적의 왕국의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자유의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자유의지는 법칙의 실질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그 규정근거를 법칙에서 발견해야 한다…따라서 입법의 형식은 그것의 준칙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의지를 규정하는 유일한 근거일 수 있다.”⁶³⁾

그럼으로 의지의 자유가 없는 존재에게 의무를 요청함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동시에 자기 입법임으로 의지의 자유와 자

61)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1987, 133쪽.

62) K. r. V., A. 5쪽.

63)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Akademie-Ausgabe (K. p. V로 표시),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16, K. p. V. 35쪽.

유 의지는 상호교환 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 성격은 주관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해명이 불가능 할 수밖에 없으므로 무제약적이라는 의미이고 이 말은 도덕률에 따르는 자유와 같은 것이다. 이때의 도덕률이라는 말은 칸트에 있어서 도덕법칙을 의미하며 당위적인 것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자연현상이 자연법칙에 따르듯이 인간의 도덕적 의지는 자기 자신의 자율적 원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 의지의 자유(행동의 자유)는 해도 좋다는 규범으로서의 외적 한계를 제시하는 바로 그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천이성비판은 자유의 실제성을 선험적으로 입증하고 실천이성을 사변이성과의 관계에서 우위라고 하는 것이다.⁶⁴⁾ 고로 자유는 감각계에 속하는 것의 “선험적 술어이며 선험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⁶⁵⁾ 그럼으로 자유는 “순수이성의 사실로서의 도덕법이며”⁶⁶⁾ 의지를 스스로 규정한다. 또한 도덕법의 가능 조건으로서의 자유는 의지의 자율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도덕법은 선험적 종합명제이기 때문이다.”⁶⁷⁾ 고로 도덕법의 가능조건으로서의 자유는 “의지의 자유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또한 도덕법의 필연적인 조건으로서 자유는 자율로서 도덕법과 자율은 불가분적이며 상호 분석적으로 파생된다.”⁶⁸⁾

그러나 자유의지로서의 자유도 그 실재성이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이성이 “실천적 고려에서 전제한 요청이다.”⁶⁹⁾ 따라서 이 요청은 선험적으로 무제약적인 실천법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한에서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⁷⁰⁾인 것이다. 그럼으로 모든 도덕성의 근거

64) K. p. V., A. 215쪽.

65) K. p. V., A. 168쪽.

66) K. p. V., A. 56쪽.

67) Gr., 432쪽.

68) K. p. V., A. 56-59쪽.

69) K. p. V., A. 238쪽.

70) K. p. V., A. 220쪽.

로서 의지의 자율은 인간의 자율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하고 인간과 외부적인 관계로서 평가되어져서는 안 된다. 곧 의지의 자유는 해도 좋다는 인간에게 규범으로서의 외적 한계를 제시하는 바로 그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⁷¹⁾ 이에 대하여 칸트는 “의지의 자율과 양립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고 의지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지의 준칙이 필연적으로 자율의 법칙과 조화해 있는 의지는 절대적 선의지다라고 하였다.”⁷²⁾ 따라서 자율적 자유는 절대적 가치로서 도덕적 인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 가치임은 그 근거가 대상에 부착된 가치가 아니라 무제약적 절대적 가치라는데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의 법칙과 자유의 법칙이 구별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칸트는 인과적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은 스스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타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으로 자유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구별하려 한다면 단지 자유의 법칙은 스스로 부과된 것이라고 가정하기만 하면 된다.⁷³⁾ 왜냐하면 자유 의지의 자발적인 인과적 행위는 스스로 주어진 법칙에 따라서만 행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율이라는 말의 의미이며 곧 자유의지는 자율의 원리 하에서 행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지의 자유가 자율,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법칙인 의지의 성질 말고 다른 무엇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의지는 모든 행위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이다라는 명제는 단지 자기 자신을 또한 보편적 법칙으로서 대상으로 가질 수 있는 준칙이외의 다른 어떤 준칙에 따라서도 행위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표시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정언명령의 정식이자 윤리성의 원리이다. 그럼으로 자유의지와

71) Hartman, *Ethik*, S. 639, 『윤리학』, 전원배 역, 원광대출판국, 1979, 749쪽.

72) Gr., 439쪽.

73) H. 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 A Study in Kant's Moral Philosophy* 『칸트의 도덕적 철학』, 김성호 역, 서광사, 1988, 304쪽.

도덕법칙 아래에 있는 의지는 한가지다”라고 하는 것이다.⁷⁴⁾ 이와 같이 칸트는 자유의 개념이 자율의 원리를 설명하는(정당화하는) 열쇠라고 주장하면서 자유의 개념을 실천이성내에 있는 근원까지 추적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자유의지와 자율적인 의지가 동의어라 하더라도 자율적인 의지에 대한 개념은 도덕성의 조건 또는 전제 분석에 의해서 얻어졌지만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도덕적 신념과는 다른 통찰과 정의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⁷⁵⁾ 또한 칸트는 우리가 의욕 하지만 어떤 특별한 불운 때문에 어떤 외부적 결과도 산출되지 않거나 최소한 의도된 결과가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5. 맺는말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칸트는 그것을 일상적 인간을 넘어선 인간성 곧 인격성을 구현하는 데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존재자로서의 인간 곧 인격을 절대적 가치로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인격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성과 인류성과도 상통하는 개념으로서 도덕성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현상적 인간과 예지적 인간은 곧 인격과 인격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칸트의 도덕철학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칸트가 진정한 자기와 참된 자기 인격의 구현 그리고 그 인격의 고귀한 내재적 가치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인격과 존엄의 근거에는 자유가 전제되어 있으며, 그 자유는 도덕법칙을 실천하는 데에서 인간의 참 모습을 찾으려는 것이다. 또한 칸트가 자연의 세계와 도덕의 세계를 통일적으로 조화하려

74) Gr., 447쪽.

75) H. J. Pat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 A Study in Kant's Moral Philosophy* 『칸트의 도덕적 철학』, 김성호 역, 서광사, 1988, 297쪽.

는 것은 그의 도덕적 구도자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기에 칸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은 내 머리위에 있고 도덕의 법칙은 내 가슴속에 있다”⁷⁶⁾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칸트는 인간에 있어서의 인간성을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은 개인을 넘어선 인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칸트의 진면목이기 때문이다.

칸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결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자는 인간뿐이므로 인간을 인간으로서 이성적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유의 개념은 자율의 원리를 설명하는 열쇠이다. 왜냐하면 자유의 개념은 실천이성내에 있는 근원까지 추적하여 정당화 할 수 있다면 자율의 명법이 가능함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지가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지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결정됨이 없이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임을 의미해야 한다. 고로 자유의 법칙은 자유의지의 자발적인 인과적 행위를 스스로 부과한 법칙에 따라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윤리의 근거는 무엇이든지 목적 자체가 될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존엄성을 갖는 가치에 있다. 따라서 현실적 인간의 인격가치의 근거가 되는 선험적 인격성의 근거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인격성으로서 목적 자체의 근거이며 곧 이성의 입법성과 자율성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로서 도덕을 입법하는 주체이다. 곧 도덕법의 실천자이다. 따라서 의무는 도덕법에 복종 곧 자기가 입법한 법칙에 자신이 복종하는 것으로 인간의 약속은 내적 가치인 동시에 의무인 것이다.

76) K. p. V., 161쪽. A. 288쪽.

참고문헌

- 강현정, 「칸트철학에서 인간 존엄성의 문제」, 한국칸트연구회, 20집, 2007.
- 김정효, 『스포츠 윤리학』, 레인보우북스, 2015.
-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1987.
- 이석희, 「칸트에 있어서의 선험적 인격성과 인격의 성립」,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75.
- 정응근·송형석, 『스포츠와 인간』, 이문출판사, 2002.
- 최재희, 『인간주의윤리학』, 일신사, 1978.
- 코스가드, 『목적의 왕국 : 칸트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김양현·강현정 역, 철학과 현실사, 2007.
- 코플스톤, 『서양철학사 칸트편』, 임재진 역, 중원문화, 1986.
- 페이튼, 『칸트의 도덕적 철학』, 김성호 역, 서광사, 1988.
-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Akademie-Ausgabe(K. r. V. A 361), 『순수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06, K. r. V. A 361-362쪽.
-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Akademie-Ausgabe(Gr),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역, 아카넷, 2014, Gr., 428-430쪽.
- Kant,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Akademie-Ausgabe(K. p. V), 『실천이성비판』, 백종현 역, 아카넷, 2016, K. p. V. 35쪽.
- Max Scheler, Der Formalism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hik, 막스 셸러,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 윤리학』, 이을상·금교영 역, 서광사, 1998, 443쪽.
- N, Hartmann, Ethik,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62, 『윤리학』, 전원배 역, 원광대출판국, 1979. 749쪽.

Personality, Dignity and Freedom of Kant

Yim, Suk-Won (Catholic Kwandong Univ.)

A lot of domestic and foreign journals have tried to apply Kant's ethics to sports ethics. Particularly, they deal with various topics including his deontology, categorical imperative, and freedom. Having those theses as a precondition,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matters of freedom, personality, and dignity as the grounds of moral law in Kant. In fact, traditionally, with the precondition that humans are rational, Kant sees that humans are the beings intrinsically equipped with personality, humanity as dignity, and voluntariness of freedom. Also, in Kant, the ultimate contact point of moral law is ego, that is an individual's rationality. Since human rationality is naturally ethical, he tries to verify personality, dignity, and freedom are the grounds of moral law. In other words, as free begins, humans belong to the virtual world (intelligible world), and as autonomous beings, humans are free and self-conscious and are equipped with their own personality in that they are ethical beings. Also, the concept of dignity is associated with the principle of personality. Furthermore, the dignity of humans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human beings are equipped with absolute value. Moreover, Kant's concept of freedom is the key to justify and explain the principle of autonomy and to verify the grounds of moral law by tracing and justifying the concept up to the roots of practical reason.

철학탐구 제48집

Key words: Kant, Personality, Dignity, Freedom, Moralisches Gesetz,
Ethics of duty of sports

임석원 e-mail: siscia@naver.com

투 고 일	2017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17년 10월 30일
게재확정	2017년 11월 13일